



의정부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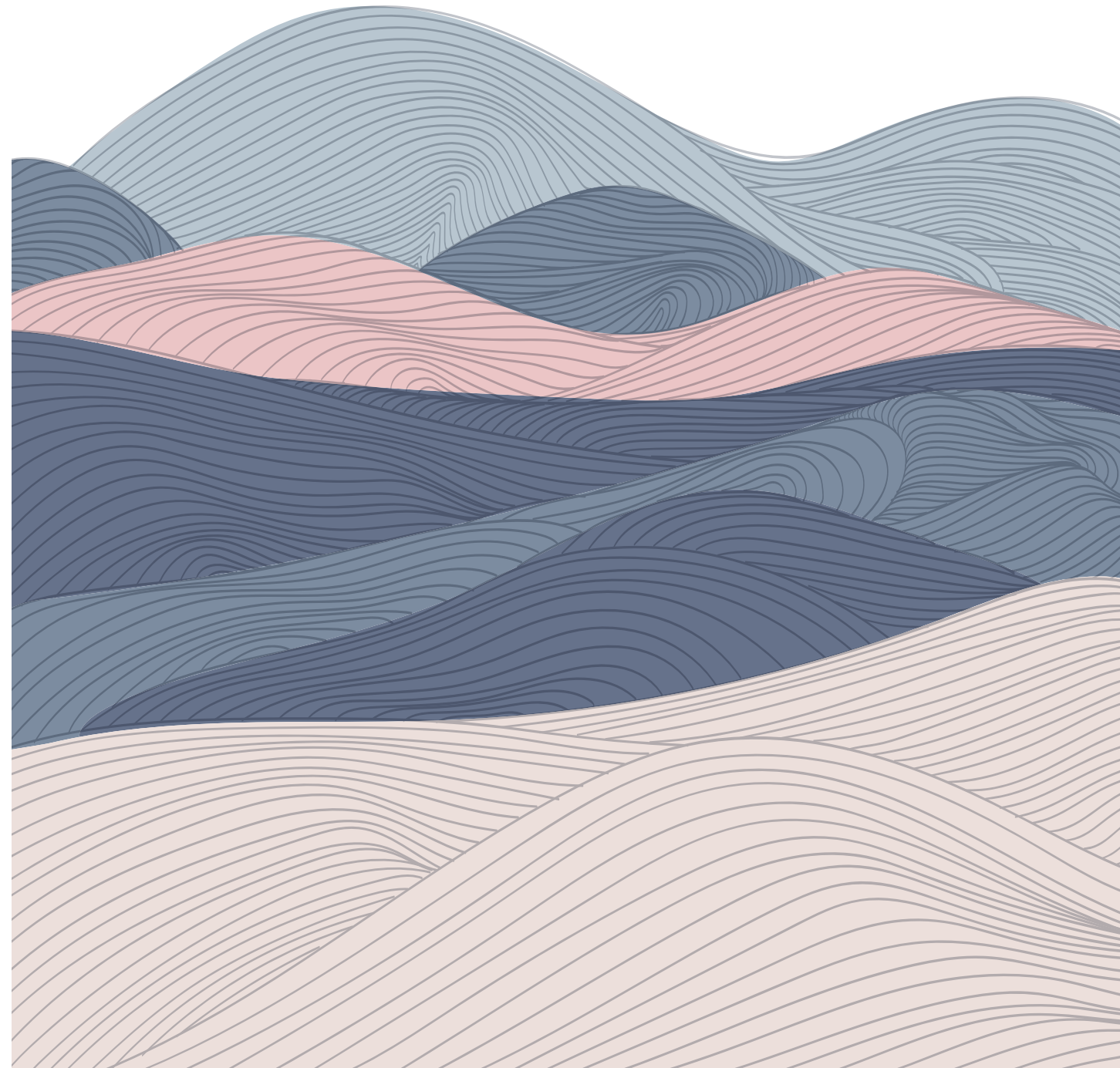
Uijeongbu Arts & Culture 2024

Art Dancing Entertainments Gukak Movie Music Photo Theate Writerr



의정부예술

우)1162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2층
TEL : 031) 837-9000 FAX : 031) 837-9011
e-mail : yechong477@hanmail.net





Contents

권두칼럼	발간사 4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연혁 6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7

협회별 이야기	국악협회	10
	무용협회	14
	문인협회	18
	미술협회	22
	사진협회	26
	연극협회	30
	연예협회	34
	영화협회	38
	음악협회	42

의정부예총 이야기	대경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48
	민음신협과 업무협약 체결 48
	(주)운트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 49
	‘2024 의정부예술제’ 개최 50
	‘2024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개최 58

전시부문	문인 66
	미술 72
	사진 76





2024 '의정부예술'을 발간하며

수많은 국민이 그러했듯 전문 예술인들 역시 수고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편 의정부지역 예술인들의 긍지를 확인하는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하기 짝이 없는 여건 속에서도 '2024 의정부예술제'와 여타 예술 활동의 명맥을 잇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한 예술가가 많았습니다. 그분들 덕에 '2024 의정부예술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그 외 많은 예술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예술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문화 확산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자유의지가 이루어낸 성취물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김훈 작가의 소설, 《칼의 노래》 첫 문장처럼 꽃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피어납니다. 꽃이 그러하듯 예술 역시 인류 문명이 형성된 이래 인간 삶에 지속적으로 뿌리 내려 예서 제서 끊임없이 줄기를 밀어 올리고 잎과 열매를 키워 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예술문화는 예술가로 하여금 자신을 더 깊이 탐색하고 끌어오르는 상상력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마주하는 관객들

은 작품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연의 자기를 만남으로써 풍요로운 사유의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아가 창작자를 비롯하여 예술문화 교류에 참여한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자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 성장발전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및 관객과의 소통이 지속되어, 황막한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한동안 무료하고 황막했던 다수의 일상이 화기롭고 유쾌하게 변모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 이미숙

history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1993.07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등의 회원 단체가 구성되어 한국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 의정부지회 창립

1993~1996

초대 류후선 회장

1995.06

1995년 6월 10일
의정부1동 190번지 16호 이전 개소

1996~2008

2대·3대·4대 이흥재 회장

2003.05

2003년 5월 10일
의정부2동 477-1호 소재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를 수탁하여 사무실을 이전 개소

2008~2012

5대 김용남 회장

2012~2014

6대 황석자 회장

2015~2020

7대·8대 최명섭 회장

2019.12

(현) 구성단체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9개 단체 구성 회원수 : 1,120여명

2020.05~202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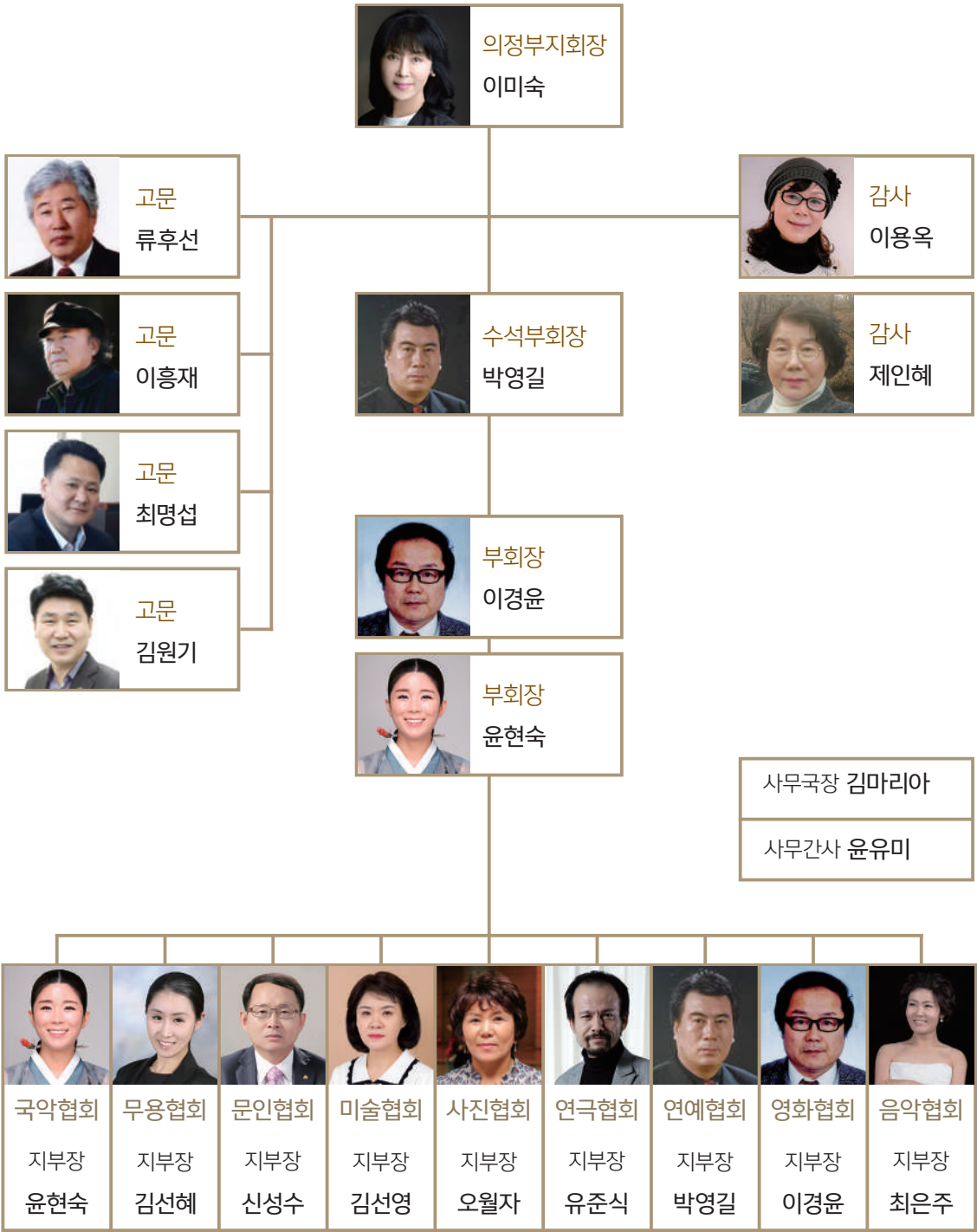
9대 김원기 회장

2022.07

10대 이미숙 회장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설립목적

9개 회원협회(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부 문화 예술의 창달과 교류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함.



협회별 이야기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영화협회 음악협회

국악 협회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장
윤현숙

2024년 국악협회 이야기

5월 18일 ‘의정부 음악극 축제’

봄날의 화양연화라는 제목으로 국악과 서양음악이 만났다. 국악과 서양음악의 융합은 대중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익숙한 서양음악의 형식에 국악의 독특한 음색과 리듬을 더해 관객이 새로운 감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연은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우리 전통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국악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였다. 두 장르가 어우러지며 고유한 감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해냈다.



6월 22일 ‘의정부국악협회 정기공연, 종지 아니한가’

의정부국악협회에서 선보인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달하였다. 삼도 설장고는 전통장단의 역동성과 흥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전통 타악기의 매력을 선사하였고 버꾸춤은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전통춤의 생동감을 보여줬다.



특히 어린이민요단의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통문화의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도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리며 정서적 감동과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공연이었다.



9월 28일 '의정부 예술제, 풍류 한마당'

이번 공연은 국악이라는 같은 장르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가야금병창과 경기민요의 만남을 주제로 새롭게 만들어보았다.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전통적인 감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경쾌하고 서정적인 경기민요가 더해지면서 전통음악의 풍부한 매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가야금의 맑고 부드러운 선율은 경기민요의 역동적이고 밝은 멜로디와 조화를 이루며 대중에게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경기민요 특유의 장단과 가창 방식은 가야금병창의 단아한 선율과 만나 새로운 음악적 색채를 만들어냈다. 가야금병창의 차분한 아름다움과 흥겨운 경기민요의 리듬이 함께 어우러져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다.



무용 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장
김선혜

2024년 무용협회 이야기

(사)대한무용협회 의정부지부는 1992년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후 전통무용 공연활동을 통해 조상의 얼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무용, 창작무용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 세계와 공연활동으로 의정부 관내를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 공연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힘찬 위상을 무용예술로 표현해 왔다.

또한 공연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재능기부활동, 대회 개최 등을 통해 무용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무용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협회의 대표적 활동인 회룡한국무용제는 22년간 순수무용(한국무용, 외국무용)분야만 실시하여 많은 차세대 순수예술인을 발굴하였으나 2022년 실용무용인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무용 경연대회로 거듭나며 우리나라 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인과 꿈나무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변모하였다.

올해 역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 분야의 많은 참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대회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세대와 분야를 망라하는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의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이자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의정부예술제에서도 문인협회와 함께 시와 무용이 융합된 새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회룡문화제 등 타 협회 및 예술단체들과 함께하며 의정부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약 30년간 의정부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춤으로 소통하고 지역예술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용협회는 김선혜 지부장을 비롯하여 지한영 부지부장 등 약 43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인들과 비예술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24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초, 중, 고, 대학생과 일반부, 신인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무용인재 발굴 및 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가을 제24회 회룡한국무용

제전국대회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실시하였다. 금년도 역시 작년에 이어 실용무용 부문과 순수예술 부문이 함께 어우러져 총 147명, 81팀의 경연자들이 뜨거운 경쟁을 선보였다.



시 상 내 역

1부 한국무용, 외국무용

대학부 및 일반부

금 상 경기도지사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고등부(한국무용)

금 상 국회의원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고등부(외국무용)

금 상 국회의원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중등부(한국무용)

금 상 국회의원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중등부(외국무용)

금 상 국회의원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초등부(고학년 한국무용)

금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초등부(고학년 외국무용)

금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초등부(저학년 한국무용)

금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초등부(저학년 외국무용)

금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신인부(비정규직)

금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은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1명 - 상장

특별상

지도자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1명 - 상장

2부 실용무용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 및 일반부)
(각 4부별 동등(최종)-댄스스포츠, 발레댄스/발레댄스 2부분)

금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은 상 국회의원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2명 - 상장

신인상 - 댄스스포츠, 발레댄스/발레댄스 2부분

금 상 의정부시장상 1명 - 상장
은 상 국회의원상 1명 - 상장
동 상 대회장상 2명 - 상장

특별상

지도자상 국회의원상 1명 - 상장

※시상증서는 관내관청에서 다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최
요강

제24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2024. 10. 27(일요일) 10:30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오전08:30 개방)

주최 : 의정부시 / 후원:한국무용협회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 (사)대한무용협회 의정부지부
후원 : 의정부시 / 의정부시의회 / 국회의원 / (사)회룡문화재단 / (사)회룡문화재단 / 의정부문화재단 / (사)대한무용협회

순수무용 뿐만 아니라 실용무용도 아우르는 회룡한국무용제를 통하여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를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경연 직후 즉시 점수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무용계의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 대회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당일 행사개최 완료 후 바로 수상자를 공개하여 다시 한 번 공정한 대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2024 의정부예술제 축하공연

의정부시를 대표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선보이는 큰 축제인 의정부예술제 무대에서, 문인협회와 함께한 콜라보 작품 및 아름다운 우리 전통춤으로 의정부 시민들을 찾았다.

문인협회와의 콜라보로 어우러진 시와 무용이 무대를 보다 풍요롭게 장식하였다.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문화단체의 가장 큰 축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단독공연이 아닌 협회 간의 협력과 화합으로 작품을 만들어 선보인 것이다. 더불어 경상남도무형문화유산 제21호로 지정된 정, 중, 동의 신비

로운 조화를 이루는 춤인 진주교방굿거리를 함께 선보이며 전통과 창작이 한 데 어우러지는 공연을 창조해냈다. 그로써 경기 침체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되었던 예술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시와 풍요로운 춤사위로 흥겨운 무대가 마련되었고, 가을날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쇯구와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같은 춤사위로 볼거리를 선사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품격 있는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문화예술 분야 예산축소 여파로 인해 예술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공연활동에도 지장이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식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성장하여 시민들에게 예술로서 다가가 시민을 위로하고 예술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다.

문인 협회



(사)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장
신성수

‘문학’ 삶을 노래하다. 2024년 문인협회 발자취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문인협회는 법정 문화도시 의정부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고민하며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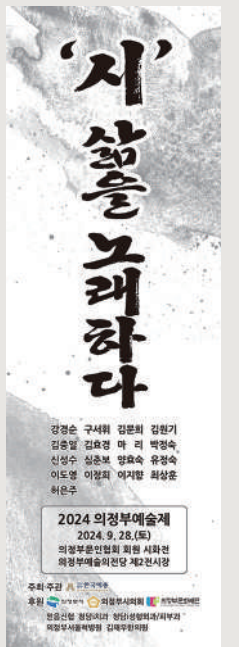
매월 진행된 월례회에서 김종일, 유정숙, 신성수, 윤 정, 이지향 회원이 ‘나의 삶, 나의 문학’을 주제로 자신의 문학 성장기와 현재를 조명하는 넉넉한 목소리를 담아 발표하였다.

또한 ‘나의 애송시’를 주제로 이지향, 김문희, 신성수, 양효숙, 김선용 회원이 주옥같은 우리나라의 명시를 소개하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7월 29일에는 명예 지부장인 김문희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가교역할을 한 중국 ‘단동 조선족문학회’ 최 철 회장이 문인협회를 방문하여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만리 타국에서도 모국어로 창작을 하고 있다는 인사말을 하여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9월 28일에는 ‘2024 의정부예술제’에서 ‘시,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회원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화를 감상하며 감동하곤 했다. 문학이 삶을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짐을 보여 준 것이다. 그날 저녁 소극장에서는 양효숙 회원이 김수영 시인의 ‘금지된 날’, 이정희 회원이 정현중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들’이라는 명시를 낭송하였다. 무용협회와 함께 콜라보 형식으로 시를 발표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미술 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장
김선영

2024년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소회

지난 4월 28일, 의정부미술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가평 지역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가평잣푸른숲 수목원에서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천년고찰 현등사에 오르며 체력 단련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주변 풍경을 스케치하고 작품 구상을 하며 창작의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업을 통해 그동안 지쳤던 마음을 달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지난 10월 19일 '제33회 전국회룡미술대전'이 시행되었다. '전국회룡미술대전'은 전국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공모전이다. 본 공모전은 신진 작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대회를 통해 발굴된 작가들은 현재 각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문



화예술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특히 신진 예술가들의 참신한 작품이 많았으며 기존 예술가들의 기량도 많이 성장했음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일반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았다.



제33회 2024 전국회룡미술대전

- 출품분야** : 미술부문 :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민화, 전통공예, 판화, 도자기
서예 : 문인화부문 : 문인화, 한글, 한문서예, 캘리그래피, 전각
- 출품자격**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인 자
- 참서교부** : 7월 1일(월) ~ 9월 21일(토) 의정부예술, www.yechong.co.kr에서 다운로드
- 출품료** : 1명당 5만원(2점 이상은 1점당 3만원 추가)
※ 반드시 분야 두 공작을 기록하고 본인 이름으로 입금 요망. (예: 서양화 출품동)
농협 351-0087-7497-03 예금주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

미술부문

평면 : 20~50호 이하(반드시 액자 표구하되 유려하게 사용불가)
입체 : 150×150×200cm이하 (도자기, 전통공예)
디자인 : 50.4×84.1cm (단색지, 컬러 2점까지 가능)

1차 심사 : 9월 19일(목)~21일(토) 1차 까지
웹하드 접수(www.yechong.co.kr) ID : yewang PW : yw2282
(33회 전국회룡미술대전) / 출품원서와 참가표를 이미지 1개
※ 필름도 부품을 붙여 아래 출품지 이력, 개인명, 생년 후 원서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 하며
작품 이미지 해상도 최소 300dpi 이상으로 접수
1차 심사 발표 : 10월 07일(월) www.yechong.co.kr 예술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우편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2차 심사 : 10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의정부문화재단 다목적실 (구)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
2차 심사 발표 : 10월 14일(월) www.yechong.co.kr 예술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우편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미술부문은 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에 1차에 미합수한 경우에는 낙선 처리함.
미술부문 대상작품은 본 협회에 귀속됨.

서예 - 문인화부문

서예 : 문인화부문 : 가로35×세로135cm, 가로50×세로135cm, 가로70×세로135cm
캘리그래피 : 가로35×세로135cm, 가로70×세로135cm, 가로70×세로135cm
전각 : 7×7cm 이내로 제한, 주문 1과를 단색지 백면 적본을 동일시에 작품 제작
※ 출품작은 액자까지 일괄적으로 출품하여야 하며 입상 작품은 본협회에서 일괄 표구하되
표구비는 출품자가 부담함. 표구해 한하는 심사결과 홈페이지 참조(대상작은 액자 표구 함)

※ 출품작은 심사일 기준 미 발표작이아니 해에 접수된 자료는 일괄 반환하지 않음.
접수 일시 : 9월 21일(토) 의정부예술 1층 (현상 접수)
접수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1층(031-837-9000)
접수 시간 : 10월 7일(월) www.yechong.co.kr 예술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우편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시상내역

대상 : 미술부문 1명, 서예 - 문인화부문 1명 - 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대당금)
최우수상 : 미술부문 1명, 서예 - 문인화부문 1명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 미술부문 2명(대상, 최우수상 부문은 우수상 없음), 서예 - 문인화부문 2명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특별상 : 미술부문 1명, 서예 - 문인화부문 1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오세상 / 상제상 : 약간 명
※ 국외의원상 : 2명,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 1명, 한국예술상 : 1명
특선 : 0명 (출품수에 비례) 입상 : 0명 (시상내역은 출품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월 19일(토) 오후 2시 (의정부문화재단 국제회의실)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부 : 미술부문 10명, 서예 - 문인화부문 10명, 오세상 5명, 특별상 4명, 특선 3명, 입선 1명
2부 : 서예 - 문인화부문 10명, 오세상 5명, 특별상 4명, 특선 3명, 입선 1명
의정부문화재단 전시장

전시장소

1부 : 미술부문 10월 20일(월) 12시~15시 까지
2부 : 서예 - 문인화부문 10월 20일(월) 12시~15시 까지
※ 2일 내 관람객이 많은 관람객에게는 관람객이 많을 - 미관용서 일괄 액자까지 무단히 발송 시
발생되는 시고는 본 협회에서 일괄 책임지지 않음.

초대작가

전국회룡미술대전에서 12점 이상의 작품을 받은 자는 9월 21일(토)까지 신청 요망.
(신청서는 의정부예술 www.yechong.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상장 사본 첨부)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5명, 오세상 4명, 특별상 4명, 특선 3명, 입선 1명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 : 010-0734-3356, 010-3703-0135

기타문의

주최 :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 주관 : 전국회룡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 의정부시 의정부의회 의정부예술

이번 10월 26일에 치른 '생활예술인 회초대회'는 '서예'와 '문인화', '캘리그래피'를 공부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행사이다. 현장 회초, 공개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현장에서 심사하여 시상식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생활예술인 회초대회를 통해 예술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결속

을 강화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서로의 예술적 시각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생활예술인 회초대회'를 시행해왔다. 특히 올해 시행한 '제4회 생활예술인 회초대회'는 생활 속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인에게 있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만한 귀중한 기회가 되었고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제4회 생활예술인 회초대회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는 서예·문인화의 전통 문화 계승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회초와 현장심사를 통해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작품을 공유하며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예술인 회초대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 위초일시: 2024년 10월 26일 (토) 10:00~12:00
- * 장 소: 의정부시청(본관) 2층 대강당
- * 대 상: 19세 이상 성인
- * 부 문: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 일반사항

- * 준 비 물: 위초에 필요한 문방사우 일체 (낙관 포함)
- 화선지 1인 2매 주초 측에서 제공, 체본 지참을 금하며 작품은 반출하지 않음. (전시 없음)
- * 작 품 규 격: (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화선지 1/2절지)
- * 위 초 명 제: 주초 측에서 공지(의정부예총 홈페이지 참조)
- * 참 가 비: 없음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 신 청 마 감: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17:00까지
- * 접 수 방 법: 출품원서는 의정부예총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이메일: sunyoung1966@daum.net
 - 우편주소 및 방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로80번길 18 의정부시 상설무대2층 예총사무실

■ 위초명제 및 참가신청서: 의정부예총 홈페이지(www.yechong.co.kr)

- * 문 의: 지부장 010-8734-3396 사무국장 010-3703-0135
- * 시 상 식: 위초당일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 시 상 내역: 대 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2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 수 상(3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 특 선(100명): 상장
- 입 선(100명): 상장

주최·주관 (사)한국미술협회의 의정부지부 후원 의정부시 의정부예총



2024 '제17회 경기의 사계, 아름다운 산하전'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를 회화예술로 표현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 의정부편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술가들이 의정부에 방문하여 1박 2일 동안 역사유적과 도시 풍경, 그리고 자연경관을 주제로 스케치하여 지역의 특색을 재발견하는 자리였다. 주요 일정으로 회룡사,



의정부부대찌개 거리, 행복로, 박세당 고택 등을 탐방하며 150여 명의 작가들이 의정부의 아름다운 경관을 현장에서 스케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 총 300여 점의 스케치 작품과 선정작가 10인의 작품들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원형전시장에서 전시하였다. 산하전을 통해 의정부의 숨겨진 미적 가치를 선보이며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초 대 합 니 다 INVITATION

議政府

The 17th GYEONGGI BEAUTIFUL LANDSCAPE

경기의 사계, 아름다운 산하전 - 경기議政府
같이 열리는 더 나은 기회와 땅 이야기

전시기간 2024. 11. 15(금) ~ 11. 20(수)
오픈 2024. 11. 15(금) 오후 5시
전시장소 의정부 예술의전당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로 1 / 010-8734-3396

주최 | (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주관 | 2024경기사계 아름다운 산하전 운영위원회 (사)한국미술협회의 의정부지부
후원 | (사)한국미술협회 한국예술 경기도총연합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경기도관광공사

사진 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장

오월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이야기

“난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랬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1908~2004)

어린 시절 보았던 ‘블로우 업’이라는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촬영한 사진 속에 우연히 살인 현장이 찍혀있었다. 것처럼 내 사진에도 아주 우연히 유에프오가 찍혔으면 하고 막연히 바랬다.

돌이켜 보건대 사진 입문 시기에 무척 흥미있었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말처럼 하루 하루 순간순간들이 모두 결정적 순간이다.

경민현대미술관, 지역작가 초대전

올해는 보조금 삭감으로 회원전을 준비할 수 없었다. 그때 지역작가초대전이라는 형식으로 사진인들을 가까이 초대해준 경민현대미술관의 협조가 그야말로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에 고급액자를 저렴하게 제작해준 업체를 만난 것도 결정적 순간이었다. 초대전에 참여한 21명의 회원이 존재했음도 그러하고, 약간의 자금을 출연하여 액자 제작을 도운 지부의 협조 역시 결정적 순간이었다.

앞서 치른 의정부예총 주관의 ‘2024 의정부예술제’ 내 사진전은 또 어떠하였던가.



2024 의정부 예술제 내 ‘각색展’

각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들고나와 전시하자고 처음에 의견을 내었을 때 반신반의하였으나, 작가 자신만의 주제를 잡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작가들 작품마다 특색있는 내용이라 하여 명명하길 “각색展”. 의정부예술의전당 제1전시장을 꽉 채운 작품들이 그 자체로 감동이었음을 그날 전시장을 찾은 이들은 느꼈을까. 연꽃은 연꽃대로, 밤하늘의 별은 별대로, 한옥 지붕 위의 꽃들은 꽃대로 아름다웠으며, 기획자는 기획자대로 흡족했다.

17명이 참여하였으며, 말 그대로 17인의 작가들이 각각의 주제로 각색전을 만들어 내었다. 이날 각색전을 더욱 돋보이게 했던 것은 제1전시장 한쪽 벽을 채운 원로작가의 의정부의 과거 흑백사진들을 모아놓은 곳이었다. 전시장을 둘러주신 김동근 의정부시장님도 그쪽에서 한참을 머물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진들이었다.



의정부 회룡 전국 사진 공모전

이제 사진 공모전을 이야기할 때인가.

보조금 감액 발표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난감했다. 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 결과 '개최하면 지부 재정 나빠진다.'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32회 공모전은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봤었다.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즈음 임원들이 다시 모여, 32회라면 30년 넘게 이어온 역사인데, 전통 있는 공모전이 여기서 중단됨이 너무 안타깝다며 차선책을 고안해냈다. 상금 없이 공모전 개최하기!

상금이 없으면 접수율이 떨어질 텐데, 작년도도 현저히 낮은 접수로 걱정이 많았던 터라 걱정에 걱정을

더했지만, 시작하기로 했으니 임원 모두 발로 뛰는 홍보로 접수율을 높여보자며 서로서로 응원하고 격려로 출발했다. 뒤늦게 출발한 만큼 일정들이 바빴다. 사진협회 본부에 광고 요청부터, 예초에 사업계획서를 새로 제출해 내는 등 그 와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했다. 의정부 회룡 전국 사진 공모전은 작가 입회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어 여러 사진동아리에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아마 추어 사진인들에게 작가 입회의 점수가 부여되는 공모전에 꼭 도전해 보시라는 제안으로 참여율을 높이 고자 애썼다.

접수 마감일이 임박해서 우편물이 쇄도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작년 대비 두 배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총 작품 수 400점에 100명의 참여가 있었다.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작품집 제작을 하였다.

출품로 지출과정 중 아끼고 아껴서 계획에도 없던 시상식과 전시를 하였다.

어찌 보면 번거로운 행사일 수도 있었으나 이런 시간

속에서 회원 간 교류가 맺어졌고, 참여한 사진인들에게 예술판의 여러 모양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임을 알기에 준비하는 마음이 가벼웠다.

'결정적 순간'이 매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음을 세밀하게

글. 강양희



연극 협회



(사)한국연극협회
의정부지부장

유준식

2024년 연극협회 이야기

1995년 의정부의 프로 연극인들이 모여 설립한 전문 연극인·단체 연대체이다.

그간 ‘통일예술제’ 총연출, ‘원코리아페스티벌’ 개최, ‘별빛여울축제’ 공연 등 축제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매년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하여 2008년, 2019년 경기도대회 대상과 2019년 본선(전국) 금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 경기도 은상을 수상하여 의정부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 문화예술일제잔재청산마당’을 개최하는 등 의정부시민들의 문화 저력을 한데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문화의날 사업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힐링의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이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효도하는 연극 ‘효 공연’을 매년 씬 없이 펼쳐와 연극의 진정한 가치를 넓히며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연극협회는 극예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유를 위해, 전문 연극인 양성을 위해, 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해, 매년 끊임없이 창작과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고 의정부시가 더 나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유준식 지부장과 박정근 부지부장, 최병화·무세중 고문, 전영옥 이사, 문인옥 감사 등을 명석으로 삼아, 극단 ‘허리’, 극단 ‘한네’, ‘대동’전위극회 등의 연극단체 소속 100여 명의 회원이 극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총체극 [마라사드]

일본초청공연 / 서울, 창동극장 / 의정부, 예술공간휴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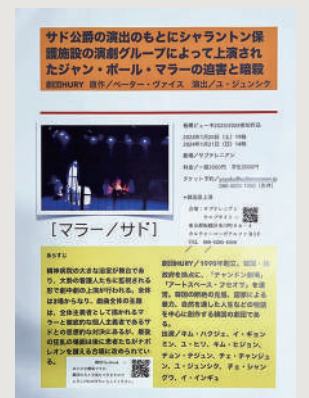
의정부연극협회소속 ‘극단 허리’ 공연

천하가 태평하면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춰 꽃피우고, 시절이 어지러우면 뜨거운 햇불을 들어 그 쓰라린 상처를 밝히는 법이다.

‘마라/사드’ 또는 ‘김원봉, 여운형, 김구, 유관순, 조봉암, 장준하.../사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했던 혁명의 두 실존 인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물음!

페터 바이스의 희곡에 유준식의 각색연출로 새롭게 무대에 올려진 <마라사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풍자했다.



뮤지컬 입체 낭독극 [하얀손수건]

의정부연극협회소속 '극단 허리' 공연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도모사업 [나의창작노트_픽업스 테이저]의 창작품이다.

배우들의 호흡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소극장을 살린 관

객과의 소통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관객객의 몰입과 호응을 이끌어 내 그 역할이 매우 소중한 작품이다.



효기획공연 연극 [꼬깔 sis터즈]

의정부연극협회소속 '극단 한네' 공연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공감하며 맘껏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새로운 창작품을 제작하여 흥겨운 노래

와 함께하는 연극을 보여드린다.

또한 클라리넷, 바이올린, 색소폰, 해금 등 다양한 라 이브 연주로도 퀄리티를 높인 효 공연이다



가족뮤지컬 [도깨비와 황소탈]

의정부연극협회소속 '극단 허리' 공연

'자연 속에서 깨닫는 아름다운 사랑, 전래동화의 동심 이 그대로 되살아난 해피 엔딩의 감동뮤지컬로 초연부 터 현재까지 매 공연마다 매진행렬을 이어왔던 작품! 2024.7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연희페스타 초청공연!

2017. 11월 아시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지역 아동극축제 초청공연!

2004. 5월 전국전통연희계발작품축제 '가족극한마당' 개막초청공연!

의정부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3일간의 축제!



나의 이야기로 채우는 연극 창작 프로젝트 [나의작은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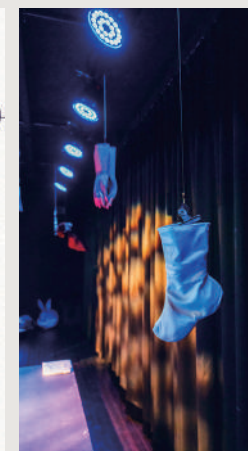
극단 허리 협업공간 "예술공간 휴서사" 프로그램

예술공간 휴서사는 경기북부에서 흔치않은 전문성을 갖춘 100% 민간예술공간이다.

문화예술 전문단체의 전문지식 및 교육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곳 휴서사가 이번 사이공간 프로젝트 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나의 작은 다이어리는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대상으로 "삶에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 나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고 싶은 사람." 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무대에 선 참여자, 객석에 있는 관객까지 감정 소통의 희열을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갖게되는 아름다운 시간여행이다.



연예 협회



(사)한국연예협회
의정부지부장
박영길

2024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계의 중심으로 자리한 연예협회

연예협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의정부시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영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분과위원장들의 헌신적인 리더십 아래,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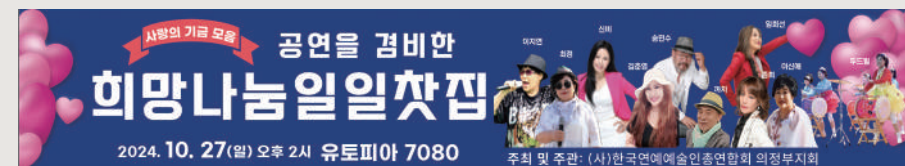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연예협회의 활동들은 단순히 협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섰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거듭 제공함으로써 의정부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나가는 데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 연예협회는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예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의정부시의 예술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질 것이다.

‘희망나눔 일일차집’

의정부연예협회는 매년 일일차집을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다과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회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협회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제16회 신세대가요제’

연예협회는 매년 의정부의 미래 가수를 꿈꾸는 신예들에게 무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세대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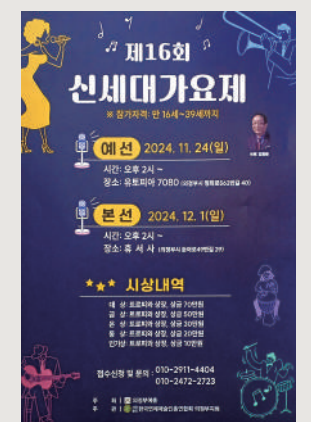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가요제는 약 50여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치열한 경연을 펼쳤으며 그중 17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 유독 뛰어나고 열정이 돋보여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

겨웠고 관객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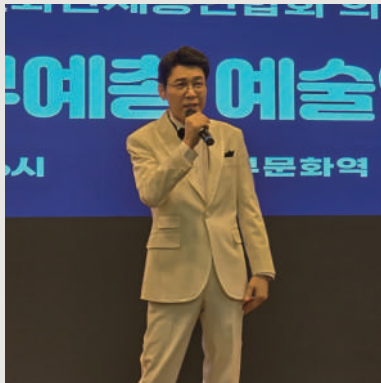
대상은 듀엣으로 야생화를 열정적으로 부른 나준태, 송지훈에게 돌아갔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및 연예협회 가수증이 수여되어, 가수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와 같은 행사로 신인 가수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음악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예협회 회원들의 연간 공연 활동

의정부는 물론이며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들의 모습.



연예협회 회원들의 수상 내역

의정부 연예협회 회원들은 음악과 공연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곳에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였으며

협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헌신을 다하며 지역사회 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정부 연예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문화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갈 계획이다.



영화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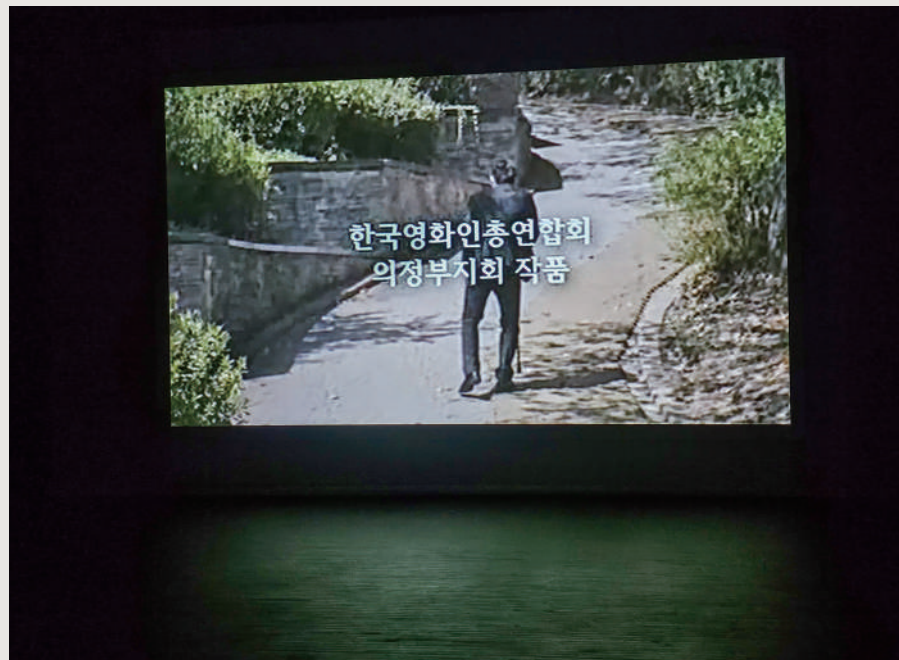
2024년 영화협회 이야기

이경윤 지부장은, 매년 가을 '만추의 밤' 영화상영회를 통해 한국영화의 우수성과 교육적 가치를 의정부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2024년 여름에는 단편 창작영화 '아내의 눈물'을 각본, 감독하여 '2024 의정부예술제(2024. 9. 28.)에 출품하여 관객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사)한국영화협회
의정부지부장
이경윤



'아내의 눈물' 소개

장르 : 드라마(단편영화)

제작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의정부지회

등급 : 전연령 관람 가

각본·감독 : 이경윤

줄거리

아내의 역할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겹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동안 아내는 정작 본인은 살피지 못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더는 내어줄 것이 없을 무렵, 아내는 생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중산층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부부에게 아들의 사업 실패라는 비보가 날아온다. 아들의 요청에 의해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며 아들 사업을 뒷받침해 준다. 아들을 위해 전원주택마저 처분한 노부부는 아들 집에

들어가 가정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 힘든 가사노동을 견디며 인간힘 쓰던 아내는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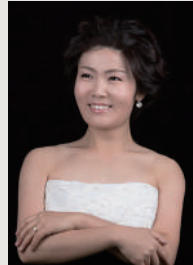
아내는 결국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남편은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한없는 상실감과 적막함에 시달린다.

'아내의 눈물'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식에 의해 불행의 늪에 빠져버린 부모의 삶을 그려낸 영화이다.





음악 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장

최은주

2024년 음악협회 이야기

‘음악협회의 아름다운 날들’

의정부음악협회는 1993년 출범하여 올해로 31년의 역사를 가진 의정부 전문음악인들의 모임이다. 2024년 현재 의정부 관내 약 60여 명의 전문음악인과 22개 단체 포함, 약 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회는 회원들의 예술 활동 지원 및 시민들의 음악적 필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공연을 기획하여 대중의 음악적 관심 및 참여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의정부의 문화정책 제언 및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매년 회원들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 및 소통을 위한 ‘회원음악회’, 음악협회의 자랑이자 29년간의 전통을 이어 온 ‘의정부시 합창대축제’, 공연장 방문이 어렵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를 주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음악도서관에서 기획공연을 주최하여 시민들의 음악적 접근성을 높이고, 자라나는 예술 꿈나무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U어린이 뮤직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문화재단, 의정부시청과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 예총, 음악도서관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회원가입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더욱 활발한 예술문화를 이끌어가도록 관내 전문음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다린다.

2024 음악협회 사업 및 행사

- 2024. 04. 20 : 제19회 회원음악회 주최(음악도서관 3층 뮤직홀)
- 2024. 05. 19 : 의정부문화재단 음악극축제(예술의전당 소극장 로비)
- 2024. 05. 25 : 기획공연1-1060콘서트(음악도서관 1층 오픈스테이지)
- 2024. 06. 22 : 합창대축제 주최(예술의전당 대극장)
- 2024. 08. 25 :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주관(예술의전당 대극장)
- 2024. 09~2024. 11 :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 주최(의정부시 관내)
- 2024. 09. 20 : 제21회 기전음악제(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 2024. 09. 28 : 의정부예술제(예술의전당 소극장)
- 2024. 09. 28 : 기획공연2-교과서 음악회1(음악도서관 1층 오픈스테이지)
- 2024. 10. 05 : 회룡문화제(회룡사 입구 사거리 특설무대)
- 2024. 11. 09 : U어린이 뮤직페스타 주관(예술의전당 소극장)
- 2024. 11. 23 : 기획공연3-교과서 음악회2(음악도서관 1층 오픈스테이지)
- 2024. 12. 20 : 윈터아rts마켓 행사 공연(예술의전당 소극장 로비)
- 2024. 12. 27 : 예술인의 밤 행사 공연(의정부 문화역 이음 모듬홀)

2024 제19회 회원음악회 ‘音を 따라온 행복’

4월 20일 오후 4시, 의정부음악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9회 회원음악회에서는 따뜻한 봄날 마음의 꽃을 피우는 마중물이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꽃처럼 향기

롭고 봄바람처럼 살랑거리는 분위기의 곡들을 선정하여 정다운 해설을 곁들여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음악협회 & 의정부 음악도서관 기획공연

2021년 의정부시 음악도서관 개관 이후, 의정부음악협회와 MOU를 맺어 매년 2~4차례의 기획공연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몇 가지 주제를 정하였다. 첫째, 차세대인 10대에서 60대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5월 25일 ‘1060콘서트’를 열었고, 오늘날 초등 및 중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곡 중 공통으로 탑재되고 자주 불리는 노래나 기악곡을 선정하여 9월 28일 초등 교과 위주의 ‘교과서 음악회-1’, 11월 23일 중등 교과 위주의 ‘교과서 음악회-2’를 개최하였다. 음악협회의 재능기부와 음악도서관의 협찬으로 협회원들과 관내에서 발굴한 어린이들이 함께 연주하며 예술로 거리를 좁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2024 제29회 의정부합창대축제 '6월愛'

6월 22일, '제29회 의정부합창대축제'를 개최했다. 예년 대비 사업비 규모가 반으로 줄었음에도 부족한 부분을 협회원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에는 수레울합창단, 신곡실버합창단, 아가페코랄, 의정부기독시니어합창단, 은빛합창단, 의정부기독합창단, 의정부혼성합창단 7개 단체가 참여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복화술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해 더욱 특별한 무대의 연속이었다. 각 합창단 연습 시간에 협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격려하면서 더욱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소속감을 다졌다.



2024 회통문화제
'꿈의 무대 콘서트'



2024 의정부문화재단
'음악극축제'



2024 의정부예술제
'오후의 클래식 Ich Liebe dich'

2024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8월 25일 오후 5시, 경기도음악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31개 도시 중 7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하였다. 경기도 전역 많은 오케스트라 중 70여 개 단체가 1차로 영상지원을 한 다음 2차로 객관적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무대에 세울 연주단체를 선별했다. 그 결과 장애통합연주단체인 '의정부 예인챔버오

케스트라'가 당당히 선정되어 홈그라운드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이 외 다른 도시 3개 단체가 함께 무대를 꾸미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을 가득 채운 관중에게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의정부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경이 더욱 넓어졌다.



2024 'U어린이뮤직페스타'

11월 9일(토) 오후 3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의정부시 관내 음악 꿈나무들의 수준 높고 화려한 공연 무대가 펼쳐졌다. 전 좌석 매진이라는 기록은 문화도시 의정부 시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기 북부의 문화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무대

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면서 그 노력과 열정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콘서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음악적 향상은 물론 건강한 문화소비를 정착화시키며 차세대 연주자 발굴 및 의정부시만의 차별화된 행사로 꾸준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의정부예총 이야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대경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믿음신협’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주)운트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

‘2024 의정부예술제’ 개최

‘2024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개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대경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이라 한다)’와 ‘대경대학교’가 2024년 4월 23일, 의정부예총 2층 강당에서 공연문화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의정부예총’과 ‘대경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협약 내용은 △예술프로그램 교류 △문화, 공연 프로그램 지원 △축제 공동 개최 △예술인력지원 등이 주를 이룬다. 이후 ‘의정부예총’과 ‘대경대학교’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예술문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의정부예총 이미숙 회장은 “의정부예총과 ‘대경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본 업



무협약으로 인해 지역 예술인과 대경대학교 측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유하게 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양측의 공동 발전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경대학교 유진선 이사장은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가 서울경기권의 대표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의정부예총과의 예술문화 교류 추진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민음신협’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이라 한다)’와 ‘민음신협’이 2024년 9월 6일 오후 5시, 민음신협 주사무소(민락지점) 4층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의정부예총’과 ‘민음신협’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였다.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사업의 제반 업무 협조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콘텐츠 상호 활용 △양 기



관의 사업 상호 홍보 △기타 상호 발전에 기여되는 사항에 협조함 등이다.

이후 ‘의정부예총’과 ‘민음신협’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예술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예술문화 향유를 위해 활발한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의정부예총은 1993년 7월 설립한 단체로서 현재 총 아홉 개 협회(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700여 명의 예술인이 활동한다. 매년 각종 공연과 공모전, 전시를 진행하고, 문예지와 예술지 발간으로 지역사회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민음신협은 지난 1970년 7월 창립하여 2024년 현재 자산규모 5천2백여 억 원에 조합원 5만5천여 명으로 성장한 의정부 지역 대표 서민금융기관이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지역에서 소외된 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미숙 의정부예총 회장은 “2024 의정부예술제”를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후원 물품을 의정부 시민에게 잘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의정부예총과 의정부시 예술문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수 민음신협 이사장은 “경기북부 예술문화의 중심인 의정부예총과 함께 민음신협 조합원들에게 예술문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주)운트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이라 한다)’와 ‘(주)운트바이오’가 2024년 9월

13일 오후 6시, (주)운트바이오 본사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사업의 제반 업무 협조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콘텐츠 상호 활용 △양 기관의 사업 상호 홍보 △기타 상호 발전에 기여되는 사항에 협조함 등이다.

이후 ‘의정부예총’과 ‘(주)운트바이오’는 양 기관의 공동 번영과 지역사회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의정부예총은 1993년 7월 설립한 단체로서 현재 총 아홉 개 협회(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700여 명의 예술인이 활동한다. 매년 각종 공연과 공모전, 전시를 진행하고, 문예지와 예술지 발간으로 지역사회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주)운트바이오는 생명과학 연구와 신약 물질 개발·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09년 창립해 선천성 희귀 난치병 치료제 개발, 노인성 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메노리자’ 개발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예총, ‘2024 의정부예술제’ 개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의정부문화재단(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및 소극장에서 ‘2024 의정부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많은 시민이 축제의 장에 나와, 다양한 장르의 예술문화를 향유했다. 전시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사진전(제1전시장), 미술전(원형전시장), 시화전(제2전시장)을 진행했으며, 사진전과 미술전, 시화전 모두 관람료 전액 무료이다.

개막식은 오후 6시, 소극장에서 열렸다. 시낭송과 창작 무용 콜라보, 전통무용 공연, 국악 공연, 클래식 공연, 가요 공연, 단편영화 상영, 경품 추첨 순으로 예술제가

진행됐다. 의정부시민 누구나 선착순 입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연 관람 역시 전액 무료이다.

이미숙 의정부예총 회장은 “이번 예술제는 의정부 예술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본 축제를 통해 예술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임을 재차 확인했다. 시화, 미술작품, 사진작품이 어우러진 전시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들은 다양한 예술의 조화를 탐구한 장이었다. 앞으로도 의정부예총은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일상 속 행복을 발견하고 정서적 풍요를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

다.”라고 했다.

의정부예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의정부시민 전 세대가 조화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만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의정부시민이 한데 어울려 공연을 하거나 전시회를 여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예술인과 의정부시민 사이 간극을 좁히고 통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화전



미술전



전통무용 '춤·향'



사진전



김동근 시장 축하 후 출연자 이승을 군과 함께



전통무용 '춤·향'



전통무용 '춤·향'



시낭송과 창작무용 콜라보



시낭송과 창작무용 콜라보



국악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풍류 한마당'



국악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풍류 한마당'



국악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풍류 한마당'



가요·색소폰 공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가요·색소폰 공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후의 클래식 'Ich Liebe dich'



가요·색소폰 공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가요·색소폰 공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후의 클래식 'Ich Liebe dich'



가요·색소폰 공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가요·색소폰 공연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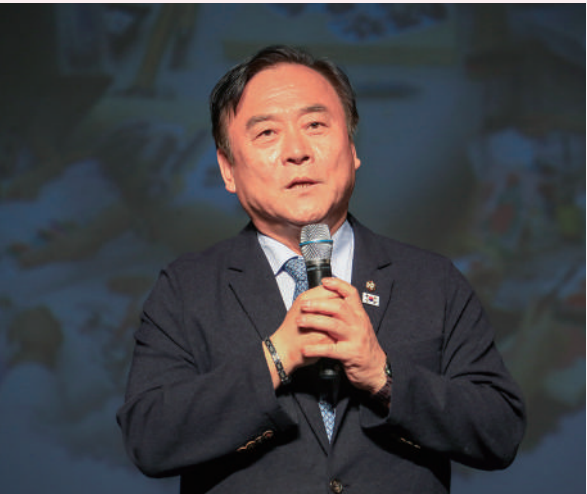
트롯 신동 이승을 군 초청 공연



트롯 신동 이승을 군 초청 공연



내빈 축사



내빈 축사



창작 단편영화 '아내의 눈물' 상영



내빈 축사



경품 추첨



창작 단편영화 '아내의 눈물' 상영



경품 추첨



경품 추첨

2024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6시, 의정부문화역-이음 '모듬홀'에서 '2024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의정부예총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하고, 의정부지역 예술계를 빛낸 예술가들에게 예를 갖추어 시상하는 자리이다.

연예협회 가수 장 운 님과 신비 님의 풍부한 가창력으로 본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어서 음악협회의 기악양상블과 소프라노의 노래로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음에 모닥불을 지핀 듯 행사장 가득 온기를 더해주었다. 공연 후에는 한 해 동안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의정부예총 소속 예술인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함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예우와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은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의정부예총은 올해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술적 성취를 나누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왔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열린 이번 '예술인의 밤'은 지역 예술 발전에 기

여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이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다짐을 나누는 자리로서 지역 예술계의 화합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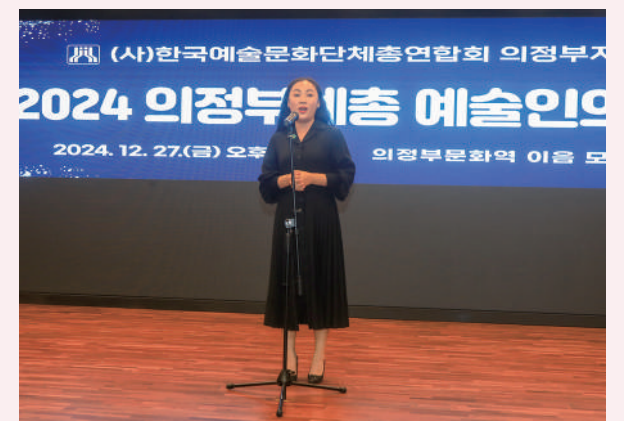
식전공연_가수 신비



식전공연_가수 장운



식전공연_소프라노 주희원



식전공연_소프라노 원시은



식전공연_기악양상블(김수미, 위세연, 이다빈)



기념사_의정부예총 이미숙 회장



행사장 내부



행사장 내부



축사_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



축사_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감사패 수상자



의정부예총회장상 수상자



축사_경기예총 천진철 회장



축사_포천예총 황의출 회장



경기예총회장상 수상자



한국예총회장상 수상자



경기도의회의장상 수상자



이재강 국회의원상 수상자



박지혜 국회의원상 수상자



경기도지사상 수상자



의정부시의회의장상 수상자



의정부시장상 수상자

2024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시상 내역

◆ 의정부시장상	국악협회 오주영	
◆ 시의회의장상	문인협회 김선용	
◆ 경기도지사상	의정부예총회장 이미숙	연예협회 박영길
◆ 박지혜국회의원상	국악협회 김다은	사진협회 김영수
	연극협회 유희리	
◆ 이재강국회의원상	무용협회 이소희	문인협회 신성수
	미술협회 김미식	연예협회 남정미
◆ 경기도의회의장상	무용협회 지한영	문인협회 양효숙
	연예협회 김정배	음악협회 최은주
◆ 한국예총회장상	무용협회 박문용	연예협회 김용환
	음악협회 김누리	
◆ 경기도예총회장상	무용협회 안현선	문인협회 이정희
	미술협회 박한흥	연예협회 박영길
	음악협회 한마루	
◆ 의정부예총회장상	국악협회 : 성민재, 이경애, 이효숙	
	무용협회 : 김은비, 김애진, 박다애	
	문인협회 : 이윤미, 구서휘, 이도영, 이숙경, 강경순, 윤 정	
	미술협회 : 정최선, 손승희, 김현자, 정해연, 우진희, 안미경	
	사진협회 : 박익철, 서경자, 양윤정, 이옥순, 이용옥, 홍성연	
	연극협회 : 안명옥, 이종현	
	연예협회 : 김춘영, 박민호, 전용진, 최 정, 장 윤, 종 희	
	음악협회 : 주희원, 원시은, 위세연, 권재연, 박유라, 이다빈	

전시 부문

늦가을,
백석천에 있었다

시

입동이 지난 백석천
수량(水量)이 줄어든 물이 갈증을 호소하고
갈대들은 늦가을 바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물이 야위어 가면서
청둥오리들과 물고기들은 먹을 것이 줄어들었고
곧 서식지를 옮겨 갈 것 같았다.

미물(微物)들은 어디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겨울을 넉넉하게 보낼까.

천적(天敵)보다도 사람이 더 무서운 삶

가여운 것들
햇살이 내려앉은 자리에 모여서
결론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데
알 수 없는 질문이 붙들고 있었다.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아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늦가을, 백석천에 있었다.

신성수

휘문고, 단국대 한문교육과 졸업.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2023년 8월 의정부시 경민IT고 교사 정년퇴임.
1993년 「문학세계」 신인상 등단.
한국문인협회, 의정부문인협회, 국제 PEN 클럽 회원.
현 의정부문인협회 16대 지부장,
저서 시집 '목련, 낮은 곳으로 오다.(2008)',
등단 30년 시선집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2023)' 외 공저 다수.



배려

시

네모난 너
각진 곳 조금씩 갈아내고
세모난 나
모서리 조금씩 버리고
동그라미 친구도
매끈함 조금씩 덜어내

울퉁불퉁 어설피도
조금씩 채워주며
손잡고 가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함께하는 거야
동글동글, 동그랗게
동글동글, 동그렇게

이정희

[참여문학] 동시 부문 등단
의정부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동시집-(2011, 우리 사는 세상 사랑이래요), (2013, 함께 살아요.)
시집 - (2023, 미안한 마음)
2024. 8 - 초등학교 교장 정년퇴임.



너머, 그날들

수필

다가오는 태풍의 영향일까?

베란다 너머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숲. 나무들의 흔들림이 바람 따라 거대하게 움직인다. 이름 모를 새들도 서둘러 둥지를 찾아 사라진다. 숲 아래로 어렴풋이 보이는 차량 역시 꼬리를 감추며 이내 시야에서 벗어나다.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여명이 짙은 구름 속으로 순식간 함몰되었다.

5층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은 늘 새롭다. 세월이 갈수록 무성해 지는 푸른 초록나무들, 고요한 듯 하지만 분주히 움직이는 사물들의 모습.

웅성거리는 소리에 창문 너머 시선이 머문다, 유치원을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줄지어 서있다. 오늘따라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우는 아이를 다독거리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띈다. 아이를 보내고 서둘러 직장장에 출근을 하려는지 옷매무새가 단정하다.

20여 년 이상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 여섯 살 된 수아는 초등학교 1학년인 오빠와 함께 서예 수업에 참가하여 어깨 너머로 배운 아이다. 곧잘 따라 하다가도 뭔가 심술이 나서 울음보가 터지면 달래는데 몇 십 분이 걸리곤 했다. 난감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내 곁을 맴돈다. 한번이라도 더 칭찬을 받기 위해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면 난처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졌다.

입술을 오므락거리며 애교스럽게 발표를 잘하던 민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폼지락거리며 화선지에 글씨를 그림처럼 그리던 윤이, 더운 날 이마에 송글 송글 맺히는 땀방울도 아랑곳 없이 팔뚝 힘을 자랑하던 선이, 실내를 돌아다니며 웅얼웅얼 거리며 웅알이하듯 한자어를 암송하던 한이, 제자리에 가

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톱툰 톱툰 거리며 에너지를 발산하던 성이, 장기자랑 시간에 엉덩이 사이로 나무젓가락을 넣고 투두둑 부러뜨려 모두를 즐겁게 해주던 린이는 정작 엉덩이가 아프다며 화들짝 놀라며 팔짝팔짝 뛴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지. 서실 창문 밖에 꽃눈이 하늘에서 억수로 쏟아지던 날, 수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갔었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온 몸으로 눈꽃을 맞이했지. 순백의 세상에서 편을 갈라 눈싸움도 하고 자기 닮은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였어. 온종일 서있는 눈사람의 발이 시려울까 걱정하는 영이가 눈사람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고,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폭신한 솜이불 위에 누듯이 두 팔 벌려 누웠지. 입을 한껏 벌려 달달한 솜사탕을 먹는 듯 송이눈을 받아먹고는 하늘에서 선녀님들이 열심히 수업하는 우리가 예뻐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말하는 희야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던지…… 그리고 목청껏 외치듯 눈 사람 노래를 합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오늘이 최고의 날이었다고 엄지를 척 올리며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규성이는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지낼까? 볼그스레 반짝이던 뺨에 유난히 까만 눈동자를 까무룩 굴리며 질문을 많이 하던 근이는?

순수의 세계에서 살던 그 많은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삶의 날들에 푸른 그리움으로 남기를 바란다. 가시 돋친 세상사에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가끔씩 행복의 조각 아름다웠던 그날들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는 날들이 많기를 바란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아 가끔 내 앞을 서성거린다.

저만치 앞에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재잘거리는 수다와 웃음은 아침언어와도 같구나

저렇게 빨간 말을 토하려고
꽃들은 얼마나 지난 밤을 참고 지냈을까
뿌리들은 또 얼마나/이파리들을 재촉했을까
그 빗줄에 닿기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물드는 저 뜨거운 꽃들의 언어

하루는 언제나 여린 아침을 데리고 온다
그 곁에서 풀잎이 깨어나고 밤은 별의 잠옷을 벗는다

아침만큼 자신만만한 얼굴은 없다
모든 신생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초록이 몸 속으로 스며드는
아침 곁에서 사람을 기다려보면 즐거우리라

내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꽃의 언어를 주고 싶지만
그러나 꽃의 언어는 번역되지 않는다
나무에서 길러낸 그 말은 나무처럼 신선할 것이다
초록에서 길러낸 그 말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음일 것이다

-이기철 님의 아침언어-

※ 아이들의 이름은 가명임.

박정숙

효석 백일장 입상
의정부전국신인문학상 공모전 입상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회원
2019~2022년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역임



마지막 김치

수필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내게 엄마의 나이를 물어 봅니다. 87세라고 하니 젊어 보이신다며 좀 놀라더군요. 그 분도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군요. 그 분이 어머니와 함께 사냐고 묻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째 혼자 사신다고 말해 주었죠. 그랬더니 그럼 반찬을 해다 드리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가끔 해주시는데요.”라고 대답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지금까지 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을 별 생각 없이 받았다는 사실과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네요.

진료가 끝나면 엄마 집에 들러 김치를 가져와야 합니다. 엄마는 며칠 전 싱싱한 열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지요. 엄마가 싱싱한 배추나 무를 보시는 순간, 다시는 김치를 담지 않겠다는 다짐 따위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엄마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기록치 않습니다. 다듬다 쉬고, 씻다가 쉬고, 버무리다 쉬고를 반복하며 김치를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김치가 적당한 때에 우리 집 냉장고로 옮겨져야 엄마의 걱정은 끝이 납니다. 제발 그만 담그라고 해도 엄마는 이제 얼마나 더 담글 수 있겠냐고,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기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담아준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다음 진료를 예약하고 엄마 집으로 왔습니다. 좋아하시는 칼국수를 만들려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온갖 영양분을 육수에 내어 준 멸치가 퉁퉁 불었습니다. 은빛 비늘도 보이지 않고 형체도 온전치 않은 자태로 체에 누워있는 멸치가 엄마를 닮아 보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으로 멸치 잡는 광경을 보았지요.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춤추듯 헤엄치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어부들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멸치 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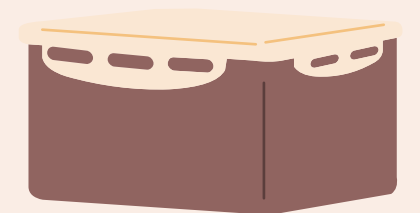
를 ‘멸꽃’이라고 부르더군요. 건어물상이나 집에서 흔히 보던 초라한 모습은 멸치의 참 모습이 아니었지요. 잠시 엄마의 은빛 날들은 언제였을까 생각해봅니다. 알고 보면 멸치의 아름다운 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이지요. 빠른 몸놀림으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희생을 최소화하는 거지요. 멸치의 은빛 춤사위는 멸치 자신에게는 고단한 삶의 몸짓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의 은빛 날들도 멸치처럼 고단했었네요. 엄마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는 주부라는 직업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했지요. 엄마는 구멍가게를 하는 아버지의 동업자로 계주로 참 바쁘게도 움직였습니다.

엄마와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입이 짧은 엄마가 잘 드시네요. 멸치와 다시마의 맛이 잘 우려난 국물에 감자와 호박을 넣고 끓인 칼국수가 엄마의 입맛을 돌아오게 했나 봅니다. 어찌면 엄마가 담근 열무김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젠 정말 그만 담그라는 말에 엄마가 딱 한 번만 더 담글 거라며 웃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엄마의 김치는 계속 공급될 것 같습니다. 기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엄마의 김치를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먹게 되겠지요. 자식들을 위해 이미 은빛 비

늘을 다 녹인 엄마는 조금 남은 힘조차 다 쓰고 싶나 봅니다. 고생하던 젊은 날보다 지금이 좋다는 엄마. 자식을 보는 게 가장 즐겁다는 엄마. 어찌면 자식과 함께 하는 날이 엄마의 은빛날일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마음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날들을 자꾸자꾸 만들어야겠습니다.

유정숙

2006년 문예사조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신명미(神明美) / 작품크기 : 85×35cm / 한지에 수묵

김은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학 박사
개인전 2회 초대전 및 단체전 다수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
경기미술문인화대전 · 서예대전 초대작가
전국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심사위원 역임
문인화정신전, 통일명인미술대전 운영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사)의정부미술협회 회원



계절의 향기(봄의 기운) / 작품크기 : 56×86cm / 옥당지에 먹, 분채

우진희

서울미술대전, 전국회룡미술대전, 자연과일상
회전, 그림사랑동우회전, 5월의꽃향기전,
화서색채전, 오늘의형상전.
경기북부작가 어울림전, 의정부 퓨전문화센터
전시, 오늘과 내일 이야기전, 인사동 경인
갤러리 단체전.
인사동 갤러리 is 5인전, 그림사랑동우회 선정
초대 부스전, 신한대 아트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작가전.
한국미술협회 지상전, 수원미술협회 60주년

기념전, 제74회 경기미술협회 회원전_경기
미술인의 함성전
경기의 사계_아름다운 산하전(의정부편) 등
현)화동행전 총무
한국미술협회 회원
경기미술협회 회원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한국화 분과장
전국 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마음의 정원(꽃으로 물들다) / 작품크기 : 116.8×80.3(P.50호) / Acrylic and Pen on Canvas

윤 경

젠그리다 스튜디오 대표
미술대학 학사/ 디자인교육대학원 석사
공인젠텐글 교사
한국젠텐글협회 회원
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 회원
문화예술인 협의체 회원
단체전 13회



응시와 사유의 숲 / 작품크기: 90.9×72.7cm / Oil on Canvas

이영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학석사 회화와 졸업
개인전 부스전 5회(갤러리 라메르 1관, 아리수갤러리)
2024년 제37회 대한민국회화제(인사동 한국미술관 전관 2층)
의정부 문화역 이음갤러리 개관 특별전
제19회 자연 사람 그림어울림전(포천반월아트홀)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미술협회, 경기국제미술창작협회 회원
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사패산의 봄의 왈츠



출어

권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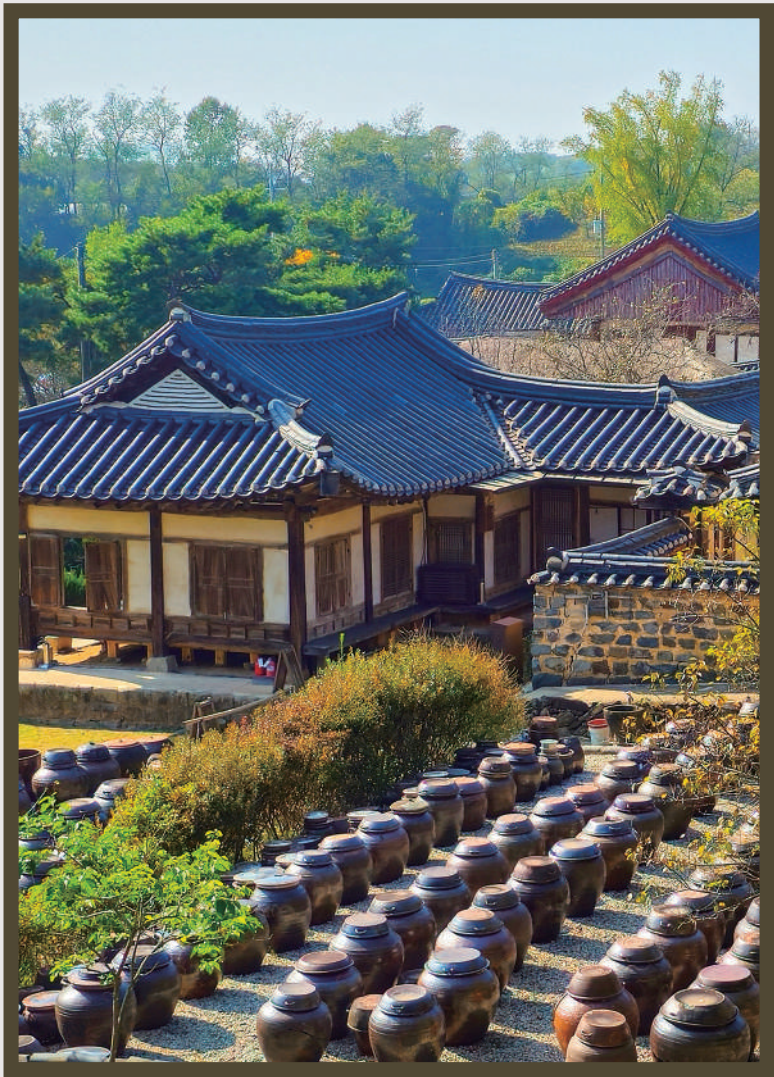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감사 역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제10대, 11대 지부장 역임
경기도 초대작가
경기도지회 부지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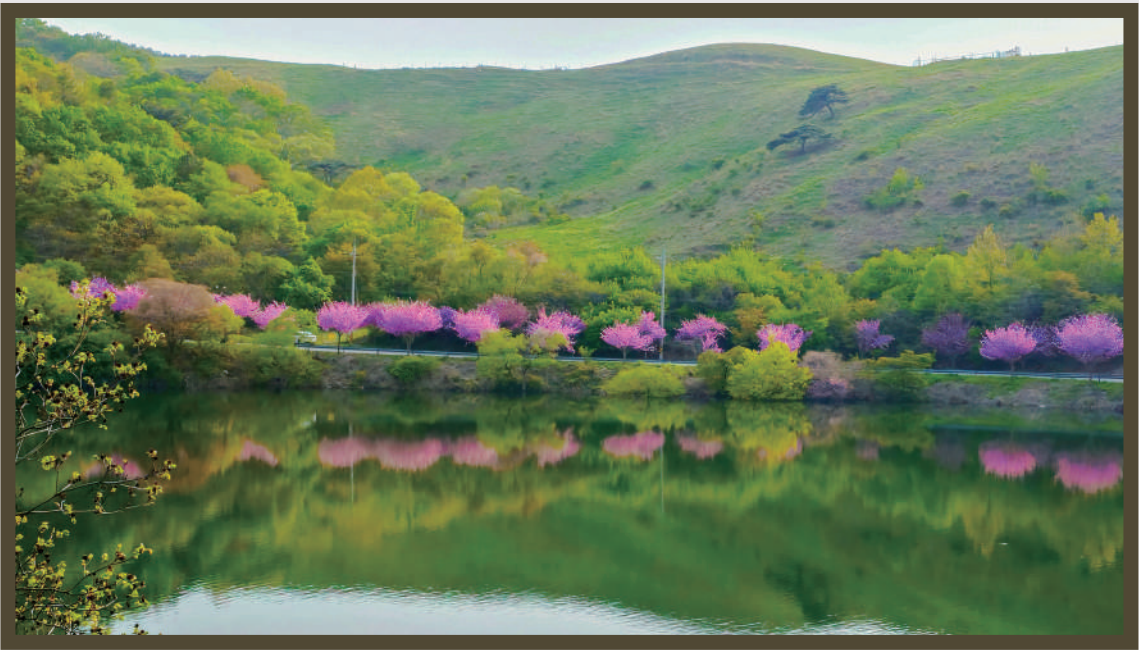
이옥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연구간사
경기북부사진연구회 정회원
전국 사진 공모전 입선 다수
경기도사진대전 입선 2회
2024. 9. 2024의정부예술제 “각색展” 참여
2024. 10. 경민현대미술관 지역작가초대전
참여





한국의 美



홍매화반

이화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경기북부사진연구회 정회원
전국 사진 공모전 입선 다수
경기도사진대전 입선 2회
개인전 2회
2024. 9. 2024의정부예술제 “각색展” 참여
2024. 10. 경민현대미술관 지역작가초대전 참여



홍성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문화간사
2024. 10. 경민현대미술관 지역작가초대전 참여
2024. 9. 2024의정부예술제 “각색展” 참여
2023. 2. 의정부예총회장상 수상
2014. 4. 제천시민의 날 기념 전국사진공모전 가작
2013. 11. 전국회룡미술대전 문인화 특선



의정부예술

Uijeongbu Arts & Culture 2024

발행처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발행인 이미숙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연락처 t. 031 837 9000 / f. 031 837 9011
이메일 yechong477@hanmail.net
홈페이지 <http://yechong.co.kr>
편집위원 유정숙·양효숙
기 획 의정부예총 사무국
출 판 동심원(t.031 852 9333)

※ 이 책은 의정부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의정부예총에 있습니다.

의정부예총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